

돈맛에 빠진 청년, 돈에 지배 당하다

주식 몰라도 스틸 넘치는 범죄영화 '돈' 20일 개봉...류준열 '원맨쇼'

100억 원대 부자를 꿈꾸는 청년 조일현(류준열)은 여의도 증권가에 주식 브로커로 입성한다.

주식 종목코드를 다 외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지만, 지방대 출신에 연줄 없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 좌절한다. 실시간 공개되는 개인별 거래 수수료 성적은 몇 달째 0원. '이 길이 아난가 보다'라며 절망할 때 누군가 검은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 바로 베일에 싸여있던 증권가 큰 손. 그를 만나려면 변호표를 뽑고 줄을 서야 한다고 해서 '변호표' (유지태)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의 작전 지시에 클릭 몇번으로 수억 원 수수료를 챙긴 조일현은 점차 돈맛을 알게 된다. 쉽게 번 돈을 냄새를 풍기는 법. 금융감독원 '사냥개' 한지철(조우진)이 냄새를 맡고 수사망을 좁혀온다.

이달 20일 개봉하는 '돈' (박누리 감독)은 금융범죄를 소재로 한 범죄영화다. 스프레드, 프로그램 매매, 공매도 같은 주식 관련 용어가 제법 등장한다. 그러나 '주알못' (주식을 알지 못하는 자)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다. 작전세력들이 순식간에 시장을 교란하고, 돈이 돈을 버는 모습 등이 스틸 있고 쫄깃하게 그려진다. 식상한 범죄영화 틀을 벗어난 새로운 이야기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돈맛에 빠진 젊은이가 돈에 지배당했다가 결국 잘못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다. 순진하고 의욕 넘치던 신입 사원 조일현은 처음 누리는 물질적 풍요에 행복해하지만, 차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변한다.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닌 탓이다. 수사망이 조여올수록 초조해하고 불안에 떠다. 그러면서도 클릭을 멈출 수 없다.

류준열은 조일현의 감정 변화를 조금씩 농도를 달리해 입체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어떤 역할이든 맞춤형 옷을 입은 듯 해내는 류준열이지만, 한층 더 성장한 연기를 본다.

외모, 학벌, 성격, 집안까지 타고난 '금수저' 동기 전우성(김재영)이나 조일현에게 변호표를 소개해준 회사 선배(김민재) 등 다양한 인물도 극을 풍성하게 한다.

다만 남성 위주 증권사에서 유일하게 여성 브로커인 박시은 대리(원지아)의 모습은 전문직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담고 있어 씁쓸하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는데도 위험천만한 거래를 계속 지시하는 변호표나 직원의 수상한 실적에도 손 놓고 있는 회사, 상사의 모습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현도 작가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베를린' '부당거래' 등의 연출부와 조감독을 거친 박누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조 감독은 1년여간 장 시작 전인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증권가에 머물며 사람들을 지켜봤고 다양한 주식 브로커와 펀드매니저 등을 만나 취재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한다. 그 덕분에 증권사 사무실 내부의 분주한 모습 등이 상당히 현실감 있게 그려졌다.



/연합뉴스

"국민역적 몰렸다" 승리 연예계 은퇴 선언

"주변에 피해주는 일 더는 용납 안돼...성실히 조사 받을 것"

'성적대 의혹' 등에 휩싸인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승리는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시점에서 연예계를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중인 사안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쌓인 모든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반 동안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미움받고 지금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역적"으로까지 불리는 상황인데 저지 하나라도 주변 모두에게 피해 주는 일은 도저히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된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지난 10여년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 국내외 많은 팬들에게 모든 진심을 다해 감사드리며 YG와 빅뱅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해 히트곡 '뱅뱅뱅',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 등의 히트곡을 내며 K팝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음식점 등 여러 사업에 뛰어들며 '승츠비'로 불렸지만,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있던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류 투약과 유동, 성범죄,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실제 운영자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해외 투자자 성적대 의혹이 담긴 카톡방이 공개돼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희귀어종 찾는 스타들 SBS 내달 '전설의 빅 피쉬'

SBS TV는 다음 달 초 낚시를 소재로 한 새 예능 프로그램 '전설의 빅 피쉬'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연예계를 대표하는 낚시꾼들이 세계를 누리며 '빅 피쉬'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행동 대장으로는 배우 이태곤이 출격한다. 이어 열심히 공부하는 낚시 만화도 개그맨 지상형이 뒤를 따른다. 또 최고의 무술감독이자 액션 배우인 정두홍, 위너의 진우, 에이핑크 윤보미도 팀에 합류한다.

첫 번째 도전 장소는 태국이다. 최대 크기 6m, 최대 무게 600kg의 거대 담수어부터 바다의 치타로 불리는 돛새치까지 있는 곳이다. 팀은 '갯지 앤 릴리스' (잡은 물고기는 다시 놓아준다)를 모토로, 현지 고수들에게 조언 방식을 배우고 소통할 예정이다.

윤종신·윤상·린킨파크 조 한 '슈퍼밴드' 합류

JTBC 내달 초 방송

가수 윤종신, 윤상, 널 김중완, 린킨파크 조 한, 악동뮤지션 이수현이 JTBC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슈퍼밴드'의 마스터군단으로 합류한다.

JTBC는 다음 달 초 선보일 '슈퍼밴드'에 이들이 출연해 일반인의 시선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참가자들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선배로서 음악적 조언자 역할을 한다고 11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조합과 음악으로 만들어질 슈퍼밴드를 결성하는 내용으로 '히든싱어', '팬텀싱어' 제작진이 만든다.



윤종신 윤상

이미 개인 또는 밴드로 지원한 다양한 참가자들이 국내 사전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으며, 5인의 마스터는 심사위원과 라운드별 미션으로 통해 다양한 조합의 음악그룹을 '슈퍼밴드' 후보로 만들어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QR code and text for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for EBS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2일(음 2월 6일 戊申)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fortune text.